

〈會員社 서클 순례 ②〉

(株) 三寶컴퓨터의

「TriGem Bowl Family」



「TriGem Bowl Family」회원 중 일부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사우간의 친선 도모와 체력 관리를 위해 모인 「TriGem Bowl Family」는 85년 8월 25명의 회원이 모여 창단식을 가졌다.

한달에 2번 정도의 정기모임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각각 나름대로의 개성(?)이 뚜렷한 Form과 숙련되지 않은 공굴림으로 미끄러지거나 Ball이 삼천포로 빠져 회원들의 폭소를 자아내곤 했는데 해를 넘기면서 노련미를 나타내고 개인 Average가 많이 향상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Game을 가졌는데 토너먼트 형식의 시합에서 각팀은 서로 단합하여 한 Pin이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해 신중히 Game에 임하는 자세에서 뜨거운 열기가 볼링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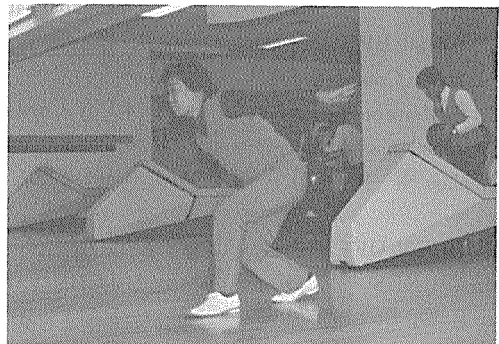
남녀 High Bowler로는 각각 남자 부문은 오찬건 사우(217점)가 여자부문은 강선영 사우(168점)가 좋은 점수로 선정되어 많은 갈채를 받았다.

볼링장은 잠실볼링장으로 정한후 회원

티켓제를 시행, 정기 모임이외에도 회원 각자가 틈나는대로 Bowling을 즐길 수가 있다.

「'86년에는 기량을 충분히 닦아 타모임과의 시합도 해볼만 하다」고 「TriGem Bowl Family」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훈씨(기술기획실 과장)의 말대로 '86년에는 Average 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배우고자 회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다.

Bowling의 묘미는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고 스트라이크의 통과함과 땀흘린 뒤의 상쾌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업부 김홍수씨의 멋진 Form